

육당 최남선의 형제들과 박석윤 [최남선과 신문관](#)

2009. 8. 13. 15:46

복사 <https://blog.naver.com/bookgram/120088240206>

역인글 5개

앞의 포스트 [\[중인의 아들 육당 최남선\]](#)에서 말했다시피 최헌규는 부인 강씨와의 사이에 육남매를 두었다. 최남선은 이 가운데 넷째이며 아들로는 둘째다.

아래 사진은 최헌규의 환갑을 기념하여 찍은 사진이다. 최헌규는 1859년 기미년 7월 생이므로 이 사진은 1919년 여름의 사진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때 최남선은 삼일 운동으로 체포되어 미결 감옥에 있었으므로 이 사진에 등장할 수 없는 노릇이다. 최남선이 가출옥으로 석방된 것은 1921년 10월의 일이다. 그렇게 보면 이 사진은 그 전해인 1918년 사진이 아닐까 싶다.



만딸 최화경과 둘째딸 최월경이 각각 1882년과 1885년 생이며, 형 최창선은 1888년 생이다. 최남선은 이태 뒤인 1890년 생이다. 그 아래로 동생 최두선이 1894년에, 막내딸 최설경이 1899년에 태어났다.

이 가운데 최창선은 바로 앞 글에서도 말했듯이 신문관과 조선 광문회의 숨은 주역이라는 점에서 눈여겨보아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별다른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다. 어쨌든

장차 육당의 전기를 다시 쓰기 위해서는 최창선에 대해서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만 기억해 두기로 한다. 흥미로운 점 하나만 덧붙이자면 최창선의 부인은 오숙선(吳淑善)이다. 부인의 이름이 오성녀(吳性女)가 아니라 실명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신여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또 터울이 꽤 지는 셋째 최두선은 워낙 유명 인사이므로 굳이 길게 언급할 필요까진 없겠다. 호는 각천(覺泉). 와세다 대학 철학과를 졸업한 뒤 중앙 고등 보통학교(중앙 고보, 지금의 중앙고) 교장으로 취임했으며, 삼일 운동 직후에는 다시 독일 유학 길에 올라 마부르 대학, 예나 대학, 베를린 대학 등에서 철학을 연구했다. 훗날 경성 방직 사장이 되었고 해방 후 동아일보사 사장, 대한 적십자사 총재, 제8 대 국무총리 등을 맡은 바 있다.



위의 사진에서 맨 뒤에 나란히 서 있는 세 사람이 각각 최창선, 최남선, 최두선 형제다. 특히 두 살 터울인 최창선과 최남선은 많이 닮았다. 어쨌거나 세 형제는 아무래도 부친 최헌규의 시대 감각과 수완을 타고난 인재들이라 할밖에 없다. 그렇다면 세 딸들 쪽 사정은 어떨까? 먼저 위의 두 누님은 일찍이 출가해서 별다른 기록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막내 최설경의 경우에는 조금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최설경은 1899년 생이므로 최남선과는 아홉 살이나 터울이 진다. 최설경은 지금의 경기 여고 전신인 한성 고녀 즉 한성 고등 여학교 출신으로 1913년 3회 졸업생이다. 훗날 춘원 이광수의 부인으로 산부인과 개업의이자 동아일보사 여기자가 된 허영숙, 또 매일신보사 최초의 부인 기자로 발탁된 이각경과 같은 반에서 수학했다. 그런데 최설경의 남편, 즉 최남선의 매부는 박석윤이라는 인물이다.

박석윤은 1897년 생으로 최설경보다 두 살 위이고 최남선보다는 일곱살 아래다. 박석윤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진 바가 많지 않은데, 여러모로 놀라운 경력의 인물임에는 틀림 없다.

박석윤은 전남 담양군 창평리 출신으로 1911년 창평 공립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건너가 관립 제일 중학교를 거쳐 성서(城西) 중학교와 제삼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1922년 동경 제국 대학교 법문학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귀국했다. 박석윤은 유학 중에 동경 유학생 학우회의 평의원이었으며, 흑우회와 코스모 구락부에도 관여한 바 있다. 1921년 7월 전주에서 열린 동경 유학생 학우회의 야구 시합에서 불온한 연설을 하는 바람에 구류 20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의 정보 보고에 따르면 박석윤은 무정부주의자나 공산주의자의 혐의가 있으나 유산 계급 출신인 탓에 조직에서도 경계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석윤의 이후 행적을 보면 삼일 운동 직후 조선 총독부 측에 포섭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석윤은 삼일 운동 직후 김준연의 전향 공작을 맡았다가 실패했지만 그 덕에 조선 총독부의 지속적인 후원을 받아 유학 길에 올랐다.

어쨌든 동경 제대 출신의 최고 엘리트 박석윤은 중앙 고보와 휘문 고보의 교사로도 잠깐 재직했으며, 그 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국제법을 공부하고 귀국한 뒤 매일신보사 부사장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이후 박석윤은 만주국에서 주 폴란드 총영사를 맡았으며, 일본의 패전 직전 조선 총독부 조사과장 최하영을 통해 몽양 여운형과 접촉하여 전후 처리 문제에도 협력한 바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박석윤이 괴뢰 국가 만주국의 외교관이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설경의 육성이 담긴 기록이 남아 있어 흥미롭다.

☞ [\[대담\] 부군 박석윤 씨 생각—향항\(香港\)까지 애아\(愛兒\)를 데리고 갔다가](#)

《삼천리》 12권 3호(1940년 3월 호) 245~248쪽.

한편 이듬해인 1941년 1월 같은 잡지(206~209쪽)에는 [<김일성 등 반국가자에게 권고문—재만 동포 백오십 만의 총의\(總意\)로>](#)라는 글이 실려 있다. 당시 동만(東滿) 일대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벌이고 있던 김일성 세력을 회유하기 위해 제작된 선전 삐라(전단)에 실린 것으로 명의는 간도 협조회 산하 동남 지구 특별 공작 후원회 본부로 되어 있다. 간도 협조회는 만주 지역 최대의 밀정 조직인 민생단의 후신이다. 바로 이 조직의 고문에 최남선의 이름이, 총무에 박석윤의 이름이 올라 있다. 이 문장을 가만히 들여다 보노라면 흡사 기미 년의 <독립 선언서> 냄새가 나서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사실 삼일 운동 무렵부터 조선 총독부에 포섭된 박석윤이 만주로 건너간 것이 이보다는 훨씬 이른다. 박석윤은 1931년 만주 지역에서 민생단을 조직한 주역이며, 1937년에는 만주국 국무원 직속 외무국 조사처장을, 그리고 1940년에는 민생단의 후신인 간도 협조회 산하 동남 지구 특별 공작 후원회 본부의 총무를 맡았다. 짐작건대는 최남선이 훗날 만주 건국 대학 교수가 되는 데에도 매부 박석윤의 힘이 어느 정도는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다. 어차피 최남선은 박석윤 따위와는 나란히 놓을 수 없는 거물급 인사이긴 했지만 말이다.

박석윤이 바르샤바 총영사로 영전한 것은 민생단과 간도 협조회를 통한 밀정 활동과 정보 수집을 통해 만주 지역의 무장 투쟁 세력을 소탕한 공로였다. 박석윤의 농간으로 만주 지역의 항일 세력은 극렬한 내부 분열에 시달렸고 급기야 대규모 살상극에 휘말린 뒤에 궤멸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 독립 운동사 연구소 장세윤 연구원의 글](#)이 좋은 참조가 된다. 물론 민생단의 성격을 단순한 괴뢰 첩보 조직이라고만 단언하기는 어렵다. 민생단의 조직과 활동, 성격에 대해서는 이견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얼마 전에 소설가 김연수가 《밤은 노래한다》에서 이 문제를 건드린 바도 있다. ([위인 글 참조](#).)

어쨌거나 박석윤은 최남선의 형제들과는 여러모로 다른 삶을 걸어간 인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들이 교묘하게 마주치는 지점 역시 존재했다. 물론 최남선도, 최두선도 박석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박석윤과 최설경 부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려진 바가 없다.

■ 사진 출처: 육당 최남선 선생 탄신 백 주년 기념 문집 《육당이 이 땅에 오신 지 백 주년》(동명사, 1990) 권두 화보.

[출처] [육당 최남선의 형제들과 박석윤](#) | 작성자 [부끄럼](#)